

뉴스분석
탄핵 선고 후 대선 지형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조망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현재가 기각·각하 또는 인용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현재의 탄핵심판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게 확실하다. <관련기사 3·4면>

여기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7일 탈당을 선언해 대선판은 또 한 번 요동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인용 경우=정지권은 조기대선 체제로 급변하게 된다. 이미 사실상 경선전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과 경선을 협상 중인 국민의당의 후보 경선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다.

범여권에서도 대선후보 경선에 돌입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탄핵에 반대해온 '진박'(진박근혜)계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

인용이든 기각이든 '대선판' 요동 김종인 탈당 '제3지대' 다시 주목

민심은 정권교체 ... "누구로 하느냐" 화두로

면서 자유한국당이 해체 수준의 분열을 맞을 수도 있다. 거꾸로 보수 결집을 시도하며 전열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탄핵을 주도하며 기존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바른정당은 정당 명분을 찾으면서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자유한국당의 이탈 세력을 규합하고 나아가 정운찬 전 국무총리 영입에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보수 세력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야권에서는 그동안 정국의 핵심인 탄핵이 일단락되면서 새로운 이슈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누구로의 정권교체가 우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느냐'는 식의 논쟁이 뜨거워질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 내 후보 경선구도가 흔들리고 궁극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권의 대표 대선주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누구로의 정권교체냐'라는 쟁점이 기존 '문제

인 대세론'을 꺾을 만큼 강력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런 점에서 조기대선 정국의 최대 변수는 제 3지대론이다.

특히 대표적 개헌론자이자 비문(비문재인) 진영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7일 탈당을 선언한 상태에서 개헌과 반패권을 중심으로 한 '제 3지대론'이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탄핵이 쟁점에서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개헌·반패권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면서 이를 고리로 한 제 3지대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문 전 대표 독주체제로 흐르고 있는 대선구도가 크게 흔들리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 속 조기대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김 전 대표가 국민의당과 민주당 내 개헌파 또는 반패권세력을 함께 묶을 경우 민주당 위주로 짜인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바른정당 전체 또는 일부 세력까지 합세할 경우 민주당-제3세력-국보수진영(자유한국당) 간 한편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의 탈당 소식을 접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반패권파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제 3지대론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

지고 있다.

반대로 제 3지대론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기존 대선구도가 유지된다면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한국당이 독자후보를 내면서 유례없는 다자구도의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기각 또는 각하=조기대선 레이스가 중단되고, 탄핵을 주도한 야권은 심각한 혼란 사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책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당으로부터의 집중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진문'(진문재인) 세력은 다른 정파의 공격 타깃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또 현재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탄핵 기각(또는 각하)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바른정당은 당 존립을 위협받게 된다.

반면 한국당은 친박계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바른정당의 이탈 세력을 흡수, 연말 대선을 향한 대장정을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드 기습 배치

한미 양국, 발사대 2기 도착 ... 1~2개월 내 국내 실전 운용

X-밴드 레이더 등 곧 한국에

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을 전격적으로 시작했다.

국방부는 7일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격미사일을 쏘는 차량형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일부 장비로, 지난 6일 밤 미군 C-17 수송기 1대로 경기도 오산 기지에 도착해 주한미군 모 기지로 옮겨졌다. 적 미사일을 탐지하는 X-밴드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등 나머지 장비와 병력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사드체계는 1~2개월 안으로 한국에 모두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부터 사드가 작전운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7일 사드 반대 입장을 재차 강력하게 표명했다. 경성(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미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안전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격 통화를 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황 권한대행은 오전 8시40분부터 20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날 통화는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양측은 이번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에 엄중히 대처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포함한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사드 발사대 도착

장비와 이송되는 장면.

국방부는 7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발사대 2기가 포함된 사드 일부 포대가 전날 밤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일 밤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한 사드 발사대 장비와 이송되는 장면. /연합뉴스

현재, 탄핵선고 날짜 못정해

13일 이전 선고 못할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7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던 선고기일 공개를 8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현재 관계자는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했다"면서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7일 현재가 오후에 평의를 열면서, 일각에서는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해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진행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는 8일에도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정미 현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전에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선고기일 통보가 하루 늦춰지면서 13일 이후 선고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대동고 국정역사교과서 신형 '흔썸' ▶6면

청년이 미래다-보성 귀농 부부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광주일보 since 1952 **65** 광주일보 창사 65주년 | 호남예술제 62주년 기념공연

2017 트리오 광주공연 Music from PyeongChang

정명화 | 손열음 | 신지아

2017년 3월 28일(화)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 A석 33,000원

첼로 정명화

피아노 손열음

바이올린 신지아

멋과 재능, 그리고 기교의 연주가
첼리스트 정명화

뛰어난 통찰력과 한계없는 테크닉
피아니스트 손열음

K-클래식의 대표주자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문의 (062)220-0541

예매 티켓마루(ticketmaru.co.kr/1588-0766)

주최 광주일보 · 아시아문화

제작 WCN WORLD CULTURE NETWORK